



‘아름다운’¹⁾이 맺은 건강한 인연, 아름다운 인연

사회복지법인다운회 다운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다운회 아름다운 / 김 은 주



10년 동안 무료 건강진단을 해 준 서울센타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모습. 다운회에서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아름다운’ 근로인이 대한산업보건의협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1년 봄이었습니다.

저혈압의 아름다운 근로인, 콜레스테롤 수치와 간수치가 정상치보다 몇 배 높은 아름다운 근로인, 고도비만의 아름다운 근로인, 당뇨 질환으로 관리가 필요한 아름다운 근로인, 간장질환 의심으로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아름다운 근로인…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대한산업보건의협회가 만난 아름다운 근로인입니다.

‘아름다운’에 근무하는 근로장 애인들은 항상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그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지



감사패 전달 후 기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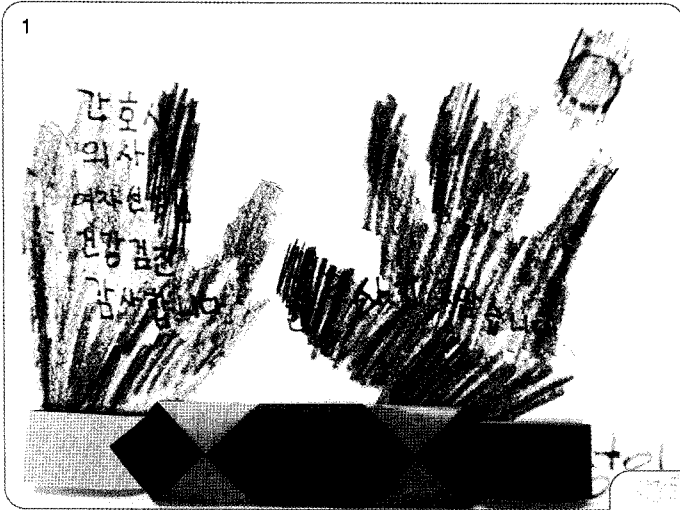
1. ‘아름다운’은 장애인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하고 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작업재활시설이다.



‘재활’ 건강진단에 필수입니다

만 일부 근로인은 병원에 가기 싫어하고, 부모님에 의해 억지로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소변검사, 혈액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등 어느 검사 하나도 쉽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강제로라도 검사가 이루어진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검사 하나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처럼



〈감사 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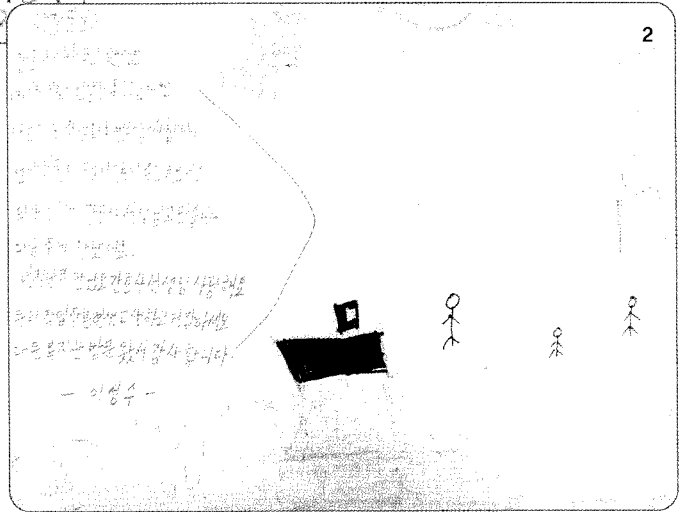
1. 정인혁(24세, 지적장애 1급 : 아름다운 근로장애인)
2. 이성수(35세, 지적장애 3급 : 아름다운 근로장애인)

낮선 환경이 아닌 익숙한 환경에서 검사를 받는다면 검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러 기관에 건강검진을 의뢰했지만, 대한산업보건협회만이 수락하고, 우리 작업장에 직접 찾아 오셔서 근로인들의 건강검진을 해 주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2001년 처음 작업장에서 건강검진을 하던 날, 검진을 잘 하는 근로인도 있었지만 혈액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근로인, 소리 지르면서 화장실로 도망가는 근로인, 먹을 것으로 유인해서 검사를 진행한 근로인, 참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애를 쓰셨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벌써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아름다운이 인연을 맺은 지 10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근로인들은 건강검진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 없이 아주 능



숙하게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건강 검진을 해주신 대한산업보건협회 선생님들의 마음이 근로인들의 거부감과 두려움을 날려버린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많은 근로인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추가 검진이나 관리가 꼭 필요한 근로인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년 건강검진 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어

사회복지법인 다운회 / '아름다운' 소개

'사회복지법인 다운회'는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들에 의해 1988년 결성된 다운증부모회를 모태로 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다운증후군이 천명에 한 명 꼴로 태어나고 있음에도 다운증후군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채 철저히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당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아홉 가정의 부모들이 그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다운증 부모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전국의 다운가족에게 실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봉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 가족이 자신의 집을 기증함으로써 법인 설립의 계기가 되었고 다운센터를 설립하여 오늘의 사회복지법인 다운회로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다운회는 다운증후군을 포함하여 지적장애인을 위한 제반 사회복지사업을 운영·지원함으로써 다운증후군인이 건강한 인간, 높은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장 면에서 적절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운회는 다운복지관(장애인복지관), 아름다운(직업재활시설), 다운주간보호센터(주간보호시설), 다운인의 집·아름다운 집(공동생활가정) 등의 복지시설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은 사회복지법인 다운회가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성인 지적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면서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머님이 있습니다.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흉부방사선검사(엑스선 촬영)를 하지 않고 버티는 수련 씨의 어머니!!

병원에서는 강제로라도 혈액검사를 할 수 없어 간장약을 처방받을 수 없는 운영 씨의 어머니!!

또한 매년 건강검진 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근로인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예쁜 간호사가 올까 기다리는 정만 씨!!

작년에 왔던 친절한 의사선생님이 또 올까 기

다리는 용정 씨!!

이렇게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아름다운은 건강한 인연!! 아름다운 인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무료 건강검진 10년, 이제 사회공헌활동의 시작이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산업보건센터 / 강 수 옥

3월16일, 8시30분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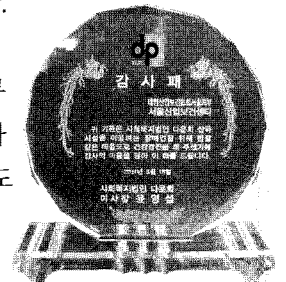
오늘따라 유난히 화창하고 따뜻한 봄별로, 춥지도 않고 포근한 날씨였다. 매년 시작하는 건강검진이기는 하나 오늘은 다른 해와 달리, 협회가 10년 동안 무료 건강진단을 해 온 “마음이 천사” 같은 “다운회” 근로장애인을 검진하는 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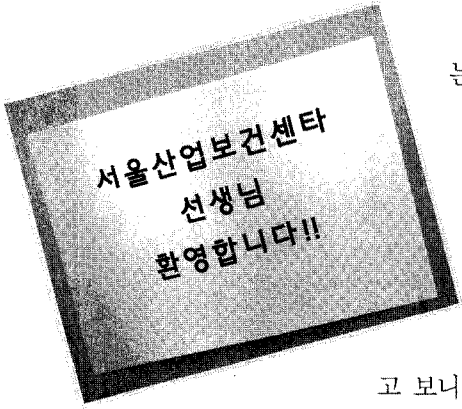
대한산업보건협회는 ‘근로장애인’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근로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관심 있게 ‘건강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10년 동안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날은 다운복지관 이사장께서 감사의 표시로 서울센터 이 상완 국장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도 가졌다.

감사패가 전달되는 순간, 직원들 뿐만 아니라 다운회 친구들도 감사하다는 뜻의 뜨거운 박수로 보내줘 가슴이 뭉클했다.

여러 해 동안 다운회 무료 검진에 참여하면서 ‘다운 증후군’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검진 장소에 걸려 있





는 그림들이다. 처음에는 일 반인이 그려서 기증한 그림 으로 생각하 고 감상 했 었는데 알

고 보니 다운회 친구가 그렸다는 것이었다. 그 친구가 미술대학 까지 나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다운 증후 군’은 한 눈에 알아보는 신체적 특성을 갖고 있지만, 신체 기능에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단지 지능발달이 지체된다고 한다.

검진을 담당하는 김은주 선생님은 항상 갈 때 마다 여러 가지 다과를 준비해 주셔서 검진하기 전에 요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다. 올해도 변함없이 차 한잔의 여유로 검진을 시작했다.

매년 검진을 해 보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매년 한 두 명 정도 채혈이 힘든 친구가 있었기에 각오하고 검진을 진행해 갔다.

그 중에 다운증후군에 지체장애가 심한 친구가 있었는데 올해는 유독 애를 먹었다.

검진할 때마다 엄마가 같이 와서 도와주곤 했는데도 힘들긴 마찬가지, 워낙 힘이 센 친구라, 어른 3-4명은 잡아줘야 겨우 채혈할 수 있었다. ‘그렇게 까지 해야 하나 그저 안하면 되지’ 하고 무심코 했던 말에, 다운회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생각이 짧았다 싶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다운회 친구들은 제대로 검진을 받을 수 없기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평생 검진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병원에 데려 가도 신경 써주는 의료진이 없어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검진을 할 수 없다고 하셨다.

정말, 다음엔 힘이 들어도 꼭 100% 검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마지막으로 남은 두 친구들을 어르고 달랠다가 20여분 정도를 밀고 당기며 결국 채혈에 성공! 이렇게 10번째 다운회 검진은 마무리 되었다.

검진을 마무리 하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얻은 것도 많았다.

항상 고객(도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매사에 신중히 말하며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아픔을 참고 욕심을 버린 다운회 부모님의 마음이, 작은 일에 감사하고 하나밖에 없는 이 아이가, 남들이 보기에는 볼품이 없는 아이일지라도 자신에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가 느껴졌다.

거울처럼 지금 나의 아이들이 얼마나 고맙고 행복한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다운회의 점심식사는 오늘따라, 분위기 있는 음식점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고 값져서 감회가 새로웠다. 🍴